인천시「일자리 기업분과위원회」제5차 회의 결과보고

□ 회의 개요

○ **(일시/장소)** ’19.10.21.(월) 14:00~15:10 / 미추홀타워 15층 회의실

○ **(참석)** 일자리 기업분과위원회 위원, (사)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사무처장, 일자리경제과장, 산업진흥과 구조고도화팀장 등

○ **(주요내용)**

- 「남동 스마트산단 조성 사업」보고 및 토론
- 「신중년-제조업 일자리 매칭 사업」제안 및 토론

□ 논의 내용

1 남동 스마트산단 조성 사업 보고

○ (주요내용) 남동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은 남동 산단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**제조혁신, 고부가가치화, 미래형 산단을** 통해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

- 연 1천억원 정도의 예산 투입, ‘23년까지 조성
- 기업분과 상정안건 **‘인천기업 지원협력 네트워크 구축·지원’** 사업을 **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에 포함**하여 추진
- 향후 세부 실행 계획 수립 후 다시 보고 예정

○ 남동공단 입주 기업 대표 대상 설명회 개최를 통해 스마트 산단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(윤○○ 위원)

○ 남동산단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여러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람(서○○ 위원)

2 신중년-제조업 일자리 매칭 사업 제안

○ (주요내용) 신중년(50~60대) 구직자와 단기 근로 수요가 발생하는 제조업체를 매칭하여 **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체의 파견업체 수수료 절감**(임금의 20~30%)을 통한 기업 부담 경감

○ 근로 능력은 있는데 기존의 파견업체에서 뽑지 않는 신중년 구직자 대상 사업으로 민간의 파견업체와의 차별성 존재(박○○ 위원장)

○ 직접 생산라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구직자 선발과정이 조금 더 엄격해야 함(윤○○ 위원)

○ 신중년은 최저임금에 지원금을 더해서 수익을 얻고 제조업체는 파견업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됨 (ITP 일자리센터장)

○ 구직자-구인업체 매칭과 관련하여 인천시 일자리종합센터의 역할 중요 (일자리경제과장)

- 일자리센터의 역량 강화, 민간 헤드헌터업체와의 협력 등 필요(정○○ 위원)

○ 일자리경제과,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, 일자리종합센터 등 협의를 통해 제안 내용 구체화하여 6차 회의 시 보고(윤○○ 위원)

- 사업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업 대상으로 수요 조사 필요(일자리경제과 담당주무관)

3 기타 의견

○ **(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사용)**

- 시비, 기업의 자기부담 등 매칭을 통해 여력이 없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업체 지원 필요(서○○ 위원)
-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실태 조사 실시, 차기 회의 시 보고(윤○○ 위원)

○ **(50인 이상 기업 52시간 근무제 시행)**

- ‘20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한 현실에서, 우수한 근로자의 활용에도 제한이 생겨 기업 운영이 매우 어려움(박○○ 위원, 박○○ 위원장)
- 이미 시행된 법을 바꾸긴 어렵지만 시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,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(박○○ 위원, 박○○ 위원장)